

통합연구 제19권1호(통권 46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고령사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6	A Study of Christianity against Aging Society 배성권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 I. 연구의 배경
- II. 본론
 - 1. 연구의 방법
 - 2. 고령사회 현황과 노인문제
 - 3.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의미
- III. 결론 및 고찰

Abstract

by Bae Sung-Kwon

Today, Korean society is approaching to aging society. Economical development and medical development are changing our society to aging society gradually. Against aging society, this study approached solution about older people problem in christian viewpoint.

Under the congregate family system of traditional agricultural society, intensive 'Parents Respect : Hyo(孝)' moral could prevent the aging issue from breaking out. But, under the circumstance of industrial society, older people problem is not only 'family's problem' or 'parents respect' now more. Recently we are experiencing a lot of older people problems in our society. Typical problems are poor economical support system, lacking medical and social welfare environment for older people. We should recognize that it will become important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In christian viewpoint, I wish to urge the christian to acknowledge their roles and duty and restore their true identity in society and carry the true nature of Christ's teachings into present. The primary concept of this study is based on Luke 10:25-37(Samaritan's metaphor), "You shall love the LOA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 and foremo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tour neighbor as yourself."

In order to solve the older people problem, we must know genuine neighboring meaning through this metaphor. In this word, genuine neighborhood is presenting that participate to neighboring pain. If we look away older people's problems, will not become genuine neighborhood. Even if

we strike on difficult real, will have to do good selection that God wants. I insist that is ture christianity.

주제어 : 노인, 고령사회, 기독교정신, 사회복지

Key words : older people, aging society, christianity, social welfare

I. 연구의 배경

2000년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급격한 고령사회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향후 20년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다양한 문제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고찰해 볼 때²⁾, 고려와 조선왕조 시대 대부분 기간은 노인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해 주는 엄격한 법과 사회규범이 사회의 기본규율이 었다. 고려시대 형법³⁾에는 경로효친 사상을 강조하여 불효자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가사상의 중심으로 하였기에 효(孝)는 보다 수준

높은 도덕적 가치로 인식되었고 적극적인 정치 및 사회문화의 기준이 되는 사상이 었다. 즉,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전제를 통해 효를 강조하며, 효가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부양하는 것을 인류의 덕목으로 삼고 나아가 정치사상의 기초로 삼은 것이 고려-조선왕조 시대 기본관념이었다. 이로 인해 노인부양과 존경은 사회의 기본질서로서 이해되고 사회활동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가 마감되고, 1910-1945 일제시대, 1940-1950년대의 해방과 한국

-
- 1) 장현숙, 배성권 외,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p.25-36
 - 2) 박재간, 한국효행실록,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6.
 - 3) 고려율(高麗律)은 고려시대 형법으로, 중국의 당률(唐律), 송형통(宋刑統)을 참작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고려의 독자적인 성문형법으로 옥관령(獄官令) 2조(條), 명례(名例) 12조, 위금(衛禁) 4조, 직제(職制) 14조, 호혼(戶婚) 4조, 구고(庫庫) 3조, 천홍(擅興) 3조, 도적(盜賊) 6조, 투송(鬪訟) 7조, 사위(詐僞) 2조, 잡률(雜律) 2조, 포망(捕亡) 8조, 단옥(斷獄) 4조 등 모두 71조로 구성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 중 효와 관련된 부분에 의하면 부모의 잘못을 남에게 알리거나 욕하는 자,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며, 실수로 부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또한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가를 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면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죄명으로 2년간 투옥시키는 등의 처벌을 하였다.

전쟁,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과거 경로사상과 노인에 대한 인식은 새롭게 그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형편이다. 이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해 전통적 농업중심의 대가족사회에서 핵가족사회로 변화되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참여 등이 가속화되어, 과거와는 다른 부양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적인 가족계획 사업의 실시로 소자녀화 현상에 의해 한명 또는 두 명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즉, 이렇게 가족 내 부양이 한계점에 이른 현실에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던 노인문제와 경로사상 등에 대한 가치관이 그대로 존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태로 고령사회를 바라보며,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문을 하게 된다. 또한 무엇이 이러한 현실적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는지, 또한 우리사회가 처한 어려움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가족공동체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담당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관점으로 노인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도 주요한 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령사회문제가 우리 기독교사회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로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고령사회의 도래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제시하고, 이것을 성경적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 재조망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려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II.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파악한 고령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 에덴동산을 상실한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헌분석과 기존 국가통계자료 및 연구자 등이 참여하였던 연구 등에서 제시하였던 각종 연구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로 고령사회와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통계청 인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문제와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주로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고령사회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노인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 논문과 성경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노인과 관련된 성경적 입장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노인의 다양한 특성과 위상에 대해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세계관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논문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고령사회의 현황과 노인문제

1) 노인의 정의

노인의 정의를 먼저 하자면, 보통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인구를 지칭하고 있으나 달리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노인의 연령분류는 법률적 적용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⁴⁾. 일반적으로는 국제연합(UN) 등의 국제적

4) 장현숙, 배성권 외,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

가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의 개념을 적용하여 65세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65세 이상의 노인의 연령개념은 비교적 선진화된 사회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증가로 파악할 때 노인의 정의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2)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1991년 71.7세, 2005년 77.9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의 배경에는 경제 및 의료기술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에 힘입어 남녀의 모든 연령별 사망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점차 높아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층 인구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구체적으로는 표 1에서 보듯이 2000년 340만명에서 2010년 530만명, 2020년에는 766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WHO에서 제시하는 고령화 수준에 대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이상 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을 감소로 인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⁵⁾. 이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프랑스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최소 50년에서 100여년 이상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OECD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빠른 국가임을 보여준다.

진홍원, 2005

5) 고령사회란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중 고령인구 구성비가 14%수준이상을 의미하며, 초고령사회란 20%이상을 말함

표 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총인구	38,124	44,642	47,008	49,594	50,650	50,296
0~14세	12,951	10,653	9,911	8,552	7,034	6,217
15~64세	23,717	31,446	33,702	35,741	35,948	32,475
65세이상	1,456	2,542	3,395	5,302	7,667	11,60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34.0	23.9	21.1	17.2	13.9	12.4
15~64세	62.2	70.4	71.7	72.1	71.0	64.6
65세이상	3.8	5.7	7.2	10.7	15.1	23.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 현상은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능력이 없는 취약노인에게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령사회의 인한 부양문제 심각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시되고 있는 점은 무엇보다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높아지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특히, 노년부양비란 경제활동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이상의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년부양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노년층을 부양하는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을만큼 급격한 출산을 하락을 보이는 반면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노년부양비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생산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노년부양비는 2005년 현재 12.6%이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7.3%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을 의미한다.

표 3. 노년부양비 및 고령화지수

(단위 : 인구 백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9.3	37.3	39.4	54.7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2.6	14.9	21.8	37.3
고령화지수	7.2	11.2	20.0	34.3	47.4	66.8	124.2	214.8

주 :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고령화지수 = (65세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 65세이상 인구)

자료 :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 1.), 통계청

4)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소외와 고립문제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전망해 보면, 산업화, 핵가족화, 도시화의 심화에 따라 부모와 자식간 별거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노인의 단독 세대수의 증가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과 2000년 통계청 조사결과에서 실제로 다음 표에서 보듯이 자녀없이 사는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들 중 1980년에 19.5%에서 2000년 50.9%로서 2.6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사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의 생활환경에서 더욱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령대별 거주형태(1980, 2000년)

(단위:%)

구 분	1980년							2000년						
	전 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5+	전 체	65~69	70~74	75~79	80~84	85~89	90+
자녀없이 사는비율	19.5	22.8	20.7	15.7	10.7	8.9	5.3	50.9	56.0	54.7	47.8	37.1	25.6	18.8
1인가구 거주비율	4.8	5.0	4.9	5.0	3.6	4.5	2.4	16.8	14.3	19.2	20.2	17.2	13.8	7.3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2.8	10.3	7.1	4.5	2.5	0.4	29.2	36.4	30.6	23.2	16.0	7.9	5.7
기타	4.6	5.0	5.5	3.6	2.6	1.9	2.5	4.9	5.3	4.9	4.4	3.9	3.9	5.8

자료 : 2002년 한국의 인구 및 주택(통계청)

노인들의 의식도 과거와는 달리 향후 자녀와의 동거 등에 대한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만 60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와 같이 동거여부에 대한 2002년 조사에 의하면 "같이 살고 싶다"가 53.0%, "같이 살고 싶지 않다"가 45.8%로 상당수의 노인들이 자녀와 지속적인 교류는 원하지만 동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60세이상 인구의 향후 자녀와 동거에 대한 의식(2002)

(단위 : %)

		합계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기 타
향후 자녀와 동거여부		100.0	53.0	45.8	1.2
	남 자	100.0	46.3	52.8	0.8
	여 자	100.0	57.8	40.8	1.4

자료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8년과 2002년 통계청의 조사결과에서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도 전반적으

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의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가족]만을 중심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줄어들고(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1998(15세이상 인구전체)	8.1	89.9	-	1.9	0.1
60세이상 대상	8.9	89.0	-	1.9	0.1
2002(15세이상 인구전체)	9.6	70.7	18.2	1.3	0.2
60세이상 대상	13.6	74.8	9.8	1.6	0.2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현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세대간 문화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며, 소위 가족중심의 부양체제에서 [가족과 사회]가 함께 공동 대응하는 사회적 부양체제로 요구도에 맞게 전환하리라 전망된다.

5)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경제적 문제

특히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관련 보고서에 의하면⁶⁾, 일본에 있어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 양극화의 주요이유 중 하나로 고령화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생산적인 활동 없이 오로지 소비계층으로 전락하면서 사회경

6) 양준호,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제적으로도 점진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⁷⁾,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생애주기별로 총 인구수 대비로 보면 노년기가 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음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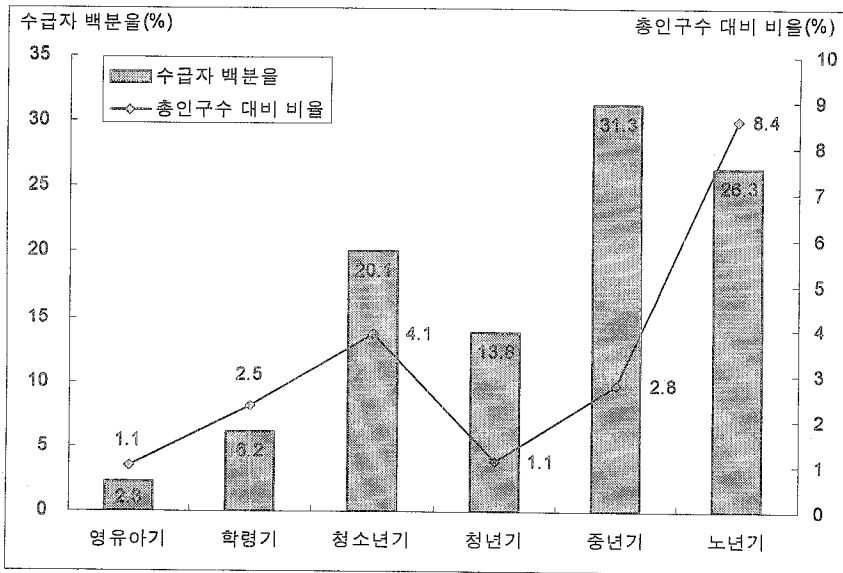


그림 1 생애주기별1)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

주: 1)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4세), 학령기(5~9세), 청소년기(10~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함.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5.

무엇보다 이러한 소득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인 중에서도 초고령층(80세 이상)이 될

7)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5.

수족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연적인 신체적 기능저하로 인하여 노동력 감퇴와 더불어 민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표 7에서 보듯이 1970년대부터 2050년까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계층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향후 우리사회에서 고령인구에 있어서 경제문제가 얼마나 심화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예측하게 하는 지표라 보여진다.

표 7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추이(1970-2050)

(단위 : 천명, %, 여자 100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20	2030	2050
65세 이상	인구수(천명)	991	1456	2195	3395	4383	5354	7821	11899	15793
	인구비율(%)	59.9%	59.0%	57.9%	57.6%	56.6%	54.2%	52.4%	52.3%	46.5%
70세 이상	인구수(천명)	563	832	1294	2014	2686	3557	5231	8140	12344
	인구비율(%)	34.0%	33.7%	34.1%	34.2%	34.7%	36.0%	35.0%	35.8%	36.3%
80세 이상	인구수(천명)	101	178	302	483	678	969	1877	2711	5859
	인구비율(%)	6.1%	7.2%	8.0%	8.2%	8.8%	9.8%	12.6%	11.9%	17.2%
합계	인구수(천명)	1655	2466	3791	5892	7747	9880	14929	22750	33996
	인구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 1.), 통계청

6)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의 보건학적 문제

노인의 보건학적 문제를 다루게 될 때, 가장 핵심은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 하겠다. 국내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결과⁸⁾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노인을 일상생활수행능력 분류(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따라 파악해 보면, 전체 65세 노인 인구 중 14.83%(경증치매 이상)이라고

8)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판단하고 있다.

표 8 연도별 노인수 및 보호형태별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 추계(2007~2019)
(단위 : 명, %)

연도	전체노인수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수 (전체노인대비 비율)	구분	
			재가보호	시설보호 ¹⁾
2007	4,792,429	488,679(10.2)	387,564(79.3)	101,116(20.7)
2009	5,148,224	523,725(10.2)	416,337(79.5)	107,388(20.5)
2011	5,476,782	556,088(10.2)	442,907(79.6)	113,181(20.4)
2013	5,917,615	599,510(10.1)	478,558(79.8)	120,953(20.2)
2015	6,345,400	641,647(10.1)	513,152(80.0)	128,494(20.0)
2017	6,786,180	685,062(10.1)	548,797(80.1)	136,265(19.9)
2019	7,313,616	737,016(10.1)	591,452(80.2)	145,564(19.8)

주: 1) 2001년 조사결과 산출된 각 연도별 시설보호대상노인수에 2002년말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의 수를 더한 결과임.

자료: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추진단: 시설인력분과위원회 내부자료 2008

또한 이러한 노인에 대한 수적 증가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료요양 등에 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의료비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 된다는 점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노인에 대한 의료급여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⁹⁾,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의료급여비용은 1999년 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표 9.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노인인구 현황

(단위 : 명)

9) 김영창, 최명순, 2002년 노인의료급여 진료비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구분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인구(%)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인구(%)
1999년	1,636,629	312,620(19.1)	45,183,951	2,859,575(6.3)
2000년	1,570,009	370,862(23.6)	45,895,749	3,019,434(6.6)
2001년	1,502,986	371,664(24.7)	46,379,161	3,216,228(6.9)
2002년	1,420,308	374,134(26.3)	46,659,476	3,344,770(7.2)

주. 의료급여수급권자 책정인원, 건강보험적용인구(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인구 비중을 감안한 진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층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급여비용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의료급여보다 좀 더 높고, 노인 1인당의료비는 의료급여(1,971천원)가 건강보험(1,101천원)보다 높으나, 65세미만 1인당의료비와 비교시는 의료급여는 1.6배임에 비해 건강보험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에서 노인층의 진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노인의료급여 진료비 분석(2002년도 1인당진료비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당진료비	65세미만(C)	65세이상(D)	D:C
의료급여(A)	1,430,090	1,236,518	1,971,367	1.6:1
건강보험(B)	408,505	355,057	1,100,664	3.1:1
A:B	3.5:1	3.5:1	1.8:1	

주. 1인당진료비=의료(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수급자책정인원(건강보험 적용인구)

이러한 양상은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이 양적인 증가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질적인 부분, 예를 들면 고령화 될수록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실제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경제활동인구에 비하여 더 많이 지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노인계층에 대한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해 볼 때, 고령사회의 등장은 무엇보다 노인에게 있어서 노동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들고, 점진적으로 육체적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간병, 가사지원 등의 부양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며, 각종 의료요양과 관련된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외와 상실감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없다면 노인문제는 풀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실타래가 될 것이다.

3. 노인에 대한 성경적 의미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노인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젊은 층마저도 머지않아 다가올 시기에 지금의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으로써 존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재인지하면서 노인 문제에 대해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 내의 일원(一員)으로써 이 문제를 기독교 세계관에 조망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1) 성경에서의 노인

노인에 관한 용어는 신약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수염이 희다(자켄)'¹⁰⁾는 의미와 '흰머리(세바)'¹¹⁾, '후들란다(아취스)'¹²⁾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대체적으로 구약성경에서는 노인을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하여지는 60대 노년기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노인을 헬

10) 창세기 48장 19절, 사무엘하 19장 32절, 욥기 12장 20절, 시편 72편 18절

11) 창세기 15장 15절, 열왕기상 14장 4절, 시편 71편 18절

12) 욥기 50장 10절, 29장 8절

라어로 '자녀 출산이 불가능한 노인(헬라어 '제론')¹³⁾, '늙은 나이(헬라어 '제라스')¹⁴⁾, '노인 또는 연장자(헬라어 '프레스 부테스')¹⁵⁾로 자녀생산 능력이 없는 생리적인 노년기와 연장자로서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머리가 희어지고, 자녀출산을 할 수 없는 생리학적인 노년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노년기를 어떻게 정의하였을까? 성경에는 아담이 930세를, 므두셀라가 969세로서 가장 오래 살았으며, 노아도 950세의 수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노아 대홍수 이후 인간수명은 대체로 120세로 제한되고 있다.¹⁶⁾ 물론 대홍수 후에도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경우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그리고 모세가 120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인 면에서 성경에 노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나이를 시편에서 제시하듯 일반적 수준이 70세, 건강하면 80세¹⁷⁾라고 장수의 개념을 이해 볼 때, 50-60세 이상의 시기를 노년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50-60세가 통상적인 노년기라고 추정하는 것은 구약의 레위인의 경우 성전봉사의 업무를 50세까지 감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이러한 근거로 대체적으로 나이는 50세-60세 정도로 생리학적으로 노년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노인이라 지칭하였다고 보여진다¹⁹⁾.

2) 성경이 전하는 노인의 긍정적 의미

성경에서는 노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보다 성경은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레위기에서 노인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함께 제시하고 있음에서 분명해 진다²⁰⁾. 노년기의 상징인 백발(흰머리, sebah)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데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으로서 여겼기에²¹⁾ 노인

13) 요한복음 3장 4절

14) 누가복음 1장 36절

15) 누가복음 1장 18절, 디도서 2장 2절

16) 창세기 6장 3절

17) 시편 90장 10절

18) 민수기 4장 30절, 8장 25절, 역대상 23장 24절 이하

19) 한스 발터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분도출판사, 1976, 214쪽

20) 레위기 19장 32절

은 존경받아야 할 분명한 대상이었다. 또한 십계명 중 하나님과 지켜야 할 계명 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22)는 말씀은 가정 내의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가르쳐주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보호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즉, 늙은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23). 또한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화를 초래하며(24), 비인간성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5).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불효하는 것은 죄로써 분명한 처벌을 받았다(26).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를 중시하며, 이를 노인공경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성경에서는 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명의 연장을 받은 자로써 축복의 상징이며(27), 지혜의 상징(28)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려주고, 충고와 권면을 통하여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다(29). 무엇보다 노인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감사하고, 후손들이 바른 신앙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30).

그러나 성경에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나는데 주로 신체의 노쇠에서 오는 연약함과 우울한 모습이다(31). 구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32), 귀가 먹고(33)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34) 등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동시에 불면증에 시달

21) 잠언 16장 31절, 잠언 20장 29절

22)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레위기 19장 3절

23) 레위기 19장 32절, 잠언 23장 32절

24) 예레미야 애가 5장 12절

25) 역대하 36장 17절

26)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1장 18-21, 27장 16절, 잠언 19장 26절, 30장 17절

27) 창세기 15장 15절, 출애굽기 20장 12절

28) 신명기 32장 7절

29) 신명기 21장 2절에서 6절, 22장 15절, 사사기 4장 2절, 예레미야 21장 17절

30) 신명기 33장, 창세기 27장

31) 시편 30편 10절

32) 창세기 27장 1절, 48장 10절, 사무엘상 3장 2절, 전도서 12장 2절

리며, 겁이 많아지고 욕망과 야망을 잃어가는 시기로³⁵⁾ 경제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상실감과 소외에 부딪치는 시기로 제시된다. 이는 현대 노인사회를 대표하는 상실과 소외의 아픔을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에 대한 내용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적절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표현이거나, 청년의 때와 비교하여 쇠약해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여야만 하는 삶에 대한 당연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노인에 대한 성경의 의미는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산 자로써,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주는 귀중한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판단된다.

3) 성경에서의 노인부양 문제

성경에서는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양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양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³⁶⁾. 이는 과거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최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650년대 이전에는 정확한 인간의 평균수명을 파악하기 힘들며, 기원전 1000년전 인류의 평균수명은 18세 전후, 예수시대에는 25세-30세 전후³⁷⁾, 16세기 경에는 약 32세, 19세기에 49

33) 사무엘하 19:35

34) 열왕기상 1장1절에서 4절

35) 전도서 12장 4절에서 5절

36)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7) 평균수명이란 원칙적으로 0세의 기대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출생 후 사망확률이 높았던 고대시대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유다왕의 평균수명은 44세정도로, 왕들의 평균수명에 비해 영양상태나 위생상태,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처치가 좋지 못한 이스라엘 일반인의 평균수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리라 추정된다. 요세푸스와 같은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인의 수명을 40세 전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출생후 영아사망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출생후 생존인구의 기록 등을 기

세 전후, 1939년경에 이르러 63세 전후로 추정하고 있다³⁸⁾.

이처럼 노인문제는 1900년대 이후에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었으므로, 성경시대에는 소수의 노인들에 대한 부양문제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체가 장수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노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입장이라 하겠다. 즉, 사회적 관점이나 문화적 관점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³⁹⁾. 이러한 한계로 인해 분명한 노인문제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문제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주제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4) 고령사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

본 연구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관점이기는 하나, 고령사회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웃'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많은 '이웃'과 관련된 성경구절이 있으나, 고령사회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이해에 있어서 연구자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여기에는 강도만난 자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우선 예수님 말씀의 관점은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것이다. 본문에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⁴⁰⁾에 대해 질문하는 데,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

준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다소 높게 추산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왕들의 평균수명은 42.3세, 고려귀족의 평균수명은 39.7세,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수명은 47세 전후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평민들의 평균수준은 이에 훨씬 못 미쳤을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의 경우, 로마제국의 통치하에서 식민지 국가로서 위생환경과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영유아기 사망의 비율이 높았으리라 예상되고, 또한 각종 급성전염병 등이 더욱 쉽게 창궐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25-30세 전후가 평균수명이었으리라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38) 木下康仁, 老人ケアの社會學, 醫學書院, 1989.

39)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53 쪽

어 있는가를 재반문 하신다. 율법학자는 구약성경을 인용하여⁴¹⁾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를 행하고,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신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 사랑으로 신실한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과제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과 이웃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 이웃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선하는 계명은 5계명으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 된 도리와 관계된 것이다. 여기서 부모공경은 노년의 부모를 돌보아 드림에 대한 것은 원칙으로 한다.⁴²⁾ 그러나, 부모 공경이 일반적인 노인 공경과 일치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제한적으로나마 노인공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에 대한 부양과 공경에 대한 의미가 일반적인 노인에 대한 공경에 문제로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⁴³⁾. 또한, 현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문제는 성경에서 제시하듯, 연장자로서 하나님께 장수의 축복을 받은 지혜자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노인은 과연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입장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본 연구자는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노인은 바로 평범한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노인은 우리 삶 밖에서 존재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 하며, 어쩌면 가족 내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40) 누가복음 10장 25절

41)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

42)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레위기 19장 3절

43)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55 쪽

내에서도 존재하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웃으로써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앞서 제시한 성경 가운데 노인의 의미에서 파악한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으로써 이웃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올법학자는 이웃을 헬라어 ‘플레시온’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학자들은 올법학자가 이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동족, 같은 종교권에 있는 사람 혹은 같은 유대인 집단에 제한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석한다. 즉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올법학자가 말한 이웃의 의미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⁴⁴⁾ 신앙의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이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본문에서 다시 올법학자는 재질문을 한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비유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강탈당한 뒤 거반 죽게 된 채 버려졌다. 여기서, ‘거반 죽게 된’이라는 헬라어 ‘아벤테스 헤미다네’의 의미는 죽음에 거의 이른 상태로 혼자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제사장이 등장하여 그 길을 지나간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는 피하여 지나간다. 두 번째 레위인이 등장한다. 레위인 역시 강도만난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외면하고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 본문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⁴⁵⁾라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만난 이를 ‘불쌍히 여긴다. 신약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12회 등장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이를 보며 가져야 할 인간의

44)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 누가복음, 제자원, 218쪽

45)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바람직한 마음이다. 또한 그에게로 ‘가까이’ 간다. 이는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로 보여진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며 마음으로부터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다가가서 그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게 판단된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준다. 당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비상시에 취하는 응급조치였다. 이러한 모습은 아픔당한 이웃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시급한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적 지원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거반 죽게 된’ 강도만난 이에겐 필수적인 것이다.

아울러,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려 가서 돌보아’ 준다. 헬라어로 주막은 ‘판도케이온’으로 당시 나그네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인숙이나 상인들이 이용하는 숙박소를 의미한다. 예수시대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매우 제한적이었으므로, 강도 만난 자가 쉬며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이 인식소에서 ‘돌보아’ 준다. 헬라어 ‘에페멜레테’는 돌봄을 받는 대상을 마음으로부터 향하여 접근하며 간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주막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하고 떠난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이의 상태가 안정되는 것을 보고, 다음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떠난다. 두 데나리온은 당시 숙박비를 고려할 때 24일 정도의 비용으로 추정된다⁴⁶⁾. 그리고, 이 비용의 추가적인 비용까지도 부담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본업을 위해 떠난다. 이 비용을 마치시며, 예수님은 다시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신다.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응답하자,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다.

이 비용을 통해 첫째로 ‘이웃’을 정의할 때, 상호간의 이익을 공유하며 가치관을

46) 요아힘 예레미아스 저,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1994

나눌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웃은 우리 곁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쓰러진 자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문제는 우리사회에 있어서 바로 쓰러지고 있는 이웃의 문제, 또한 앞으로 아픔을 겪을 이웃의 문제이다. 노동력의 감소와 신체적으로 쇠약해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하여지며, 심리적으로도 육체적 쇠약과 더불어 소외와 상실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웃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령화될수록 경제적 의료적으로 더욱 큰 부담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강도만난 이를 외면하지 않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용기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신앙과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외면하고 피하는 거짓 이웃으로써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존재가 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가까이' 가야 한다. 헬라어로 '프로셀론'처럼 강도만난 이를 향하여 다가서는 자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서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들과 관심과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가서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들과 일치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노인대학을 설치하고, 독거노인들과의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숙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학문적으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야 한다. 이는 의료적 요구와 기본적인 구호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더욱 필요하게 될 의료적 문제와 기본적인 삶에 대한 요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아픔을 싸매며, 상처를 소독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⁴⁷⁾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업

47)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안내, 2005

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의 이쁨은 이해하지만 현실적 요구에는 동참할 수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여겨진다.

취약노인계층에게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주막'으로 데려 가서 돌보아의 말씀은 이러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사마리아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현재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⁴⁸⁾ 국가적으로 이를 위한 투자비용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BTL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⁴⁹⁾.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이 민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하게 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형태의 안식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차원에서 체계화된 시설운영은 노년기에 상실의 문제로 방황하는 노인들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 효과나 결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들이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한다.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28절에 사용된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기페이세이스'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아가파오'의 현재 명령법으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리고 자기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상고해 볼 때,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자세는 너무도 바람직한 자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37절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신다. '가서'의 헬라어 '포류우'와 '하라'는 헬라어 '포이에오'는 모두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된 말씀이다. 즉, 이웃에게 명확한 실천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이다.

48)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 기획단, 2004

49) 한국개발연구원, BTL민간투자사업 기본지침, 2005

무엇보다 성경말씀에서 보듯 존경을 받아야 될 당연한 대상인 노인에게 이러한 강도만난 이웃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불경스러운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본 연구의 접근방법이 다소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다양한 우선순위의 사업과 정책들로 인해 노인의 문제가 도의시되고 의면되며 노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 무시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에서 현실적인 [강도만난 이웃]과 다를 바 없는 실존적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소 무리를 안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 부양하며 지원해야 할 이웃 향후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랑해야만 하는 이웃의 개념에 본 연구를 접근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이웃은 어떠한 이웃이나의 근본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사마리아인이 최선을 다해 '강도만난 사람'을 도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노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귀한 이웃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향후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보았다. 특히, 부양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의료적 측면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삶 자체에서 표출될 문제들을 볼 때,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대할 때,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했다. 우선 성경적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서 노인은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며, 또한 삶의 경륜과 축복으로써의 장수(長壽)를 파악할 때 이 사회에서 노인들을 부양하며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 소수에 불과하며 가정적 차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노인부양의 문제와는 달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비용면

에서나 지원면에서 사회나 교회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가가기 힘든 문제로써 노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노인문제는 확대된 이웃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중요한 이웃의 존재로써 노인을 다가서고 노인의 아픔과 상실에 동참하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권유의 차원이 아니라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실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들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말씀과 신앙의 본질은 알 되, 실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이 사회의 이웃을 모르며 사는 자이고,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부인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다가올 고령사회 내에서 노인부양과 노인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노인을 어려움에 처한 '강도만난 이'로 판단하고 다가서는 이웃의 본질을 회복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올러, 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연구자의 지식적 한계와 경륜의 부족으로 인해 전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세밀하고 깊은 곳까지 접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질 또 다른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손길 위에서 더욱 구체화되리라는 믿음을 가진다.

참고문헌

-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추진단. 시설인력분과위원회 내부자료. 2003
- 김영창, 최명순, 2002년 노인의료급여 진료비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
- 김중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박재간, 한국효행실록,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86.
-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5.
-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 2000.
- 양준호,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6.
-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 누가복음, 베스트바이블, 218쪽
- 요아힘 에레미아스 저,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1994.
- 장현숙, 배성권 외, 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장현숙, 배성권 외,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정경희 외,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통계청, 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2년 한국의 인구 및 주택, 통계청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 1.), 통계청
- 한국개발연구원, BTL민간투자사업 기본지침, 2005
- 한스 발터볼프, 구약성서의 인간학, 문희석 역, 분도출판사, 1976
- 木下康仁, 老人ケアの社會學, 医学書院, 1989.

배성권

고신대학교 보건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보건학 석사

경북대학교 보건학 박사

선린대학 보건행정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 역임(1997-20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단 책임연구원(2002-2005)

현 고신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전임강사(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2005)”

“의료제도선진화 및 병원산업육성방안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실버보건복지산업육성 과제개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실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